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2. 22

CONTENTS

〈요약〉

1. 서론
2. 기존 연구 결과
3. 기초 현황 분석
4. 규제 완화 영향 분석
5.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 분석

임형빈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im@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충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존 연구 분석결과를 고찰하고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음.

요약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투자 효과가 수도권 지역의 투자 효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비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수도권 투자의 효과 보다 높게 나타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어 왔으나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역총생산(GRDP)과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 충남의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의 기업유치 증가율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수도권 유치 기업 실적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
- 현황과 분석 결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투자 효과가 높은 비 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기업 투자환경 강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주로 수도권 투자의 효과, 수도권의 생산성, 수도권 정책의 효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김경환, 2005; 이춘근, 2008; 서승환·김갑성, 2004 등)
 - 주로 이분법적 관점에서 논쟁이 이루어져 왔으며, 균형적인 시각의 연구로 수도권은 집적 이익은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결과임(박상우 외, 2001; 김의준 외 2005)
 - 수도권 규제 정책 관련 연구 결과로 수도권의 규제 대상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하며(지해명, 2002),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지방 재정력 기반 강화 수단이 효과적(허재완, 2003)이라는 연구가 있음
-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음
- 그러나 경제외기를 거치며 2000년 이후 첨단 산업의 제한적 입지 완화,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입지 등 수도권 지역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상당수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로 인한 지역경제의 부정적인 효과와 지역투자의 효과를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국가 균형발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충남지역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실적을 통하여 충남지역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함
 -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정적인 영향 분석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효과를 분석함

기존 연구 결과 ◀

02

-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은 김문연, 지역균형발전협의회(2008), 허재완(2002), 국토연구원(2003)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
- 김문연 외(2007)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액 변화로 비수도권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함
 - 충남의 경우에는 생산액 28조 3천억원, 부가가치 6조 8천억원, 종사자수 2만명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표>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전국	비수도권(A)	충남(B)	비율(B/A)
생 산 액	-	758,470	283,090	37.3%
부가가치	-	310,230	68,680	22.1%
고 용	-	1,145,120	214,480	18.7%

주: GRDP 성장률 50% 감소 가정시 추정

자료 : 김문연 외, 2007.12, “수도권 규제의 효과,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지역균형발전협의회(2008)는 자본과 노동 투자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
 - 자본 1%를 수도권 투자 시 전국적으로 4,78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용 1%를 수도권 투자 시 전국적으로 2,0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자본 및 고용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단위: 억원)

구분	투자지역	경제파급효과(부가가치)		
		수도권(A)	비수도권(B)	전국(A+B)
자본 1%투자	수도권	26,590	-21,810	4,780
	비수도권	-26,800	21,660	5,140
고용 1%투자	수도권	5,260	-7,330	2,070
	비수도권	-5,960	7,280	1,320

주: 2005년 현재 수도권 제조업 자본 1%(10,167억), 제조업 고용 1%(13,178명) / 비수도권 제조업 자본 1%(19,472억), 제조업 고용 1%(14,532명)

자료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2008.9,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 허재완(2002)의 제조업을 대상으로의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6.9억원 파급효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 제조업 부분에 같은 금액 투자시 수도권보다 비 수도권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일반제조업 투자의 권역별 투자효과 (단위 : 억원)

100억 투자시	경제 파급효과(생산액)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A+B)
수도권 투자	171.5	1.7	173.2
비수도권 투자	21.5	158.6	180.1
수도권 규제 완화	-	-	-6.9

자료: 허재완, 2002,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 국토연구원(2003)은 투자비 증가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 완화 시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도권에 투자시 단기적으로 0.1%에서 장기적으로 0.25% 증가되며, 비수도권에 투자시에는 단기적으로 0.1%에서 장기적으로 0.28% 증가함
 -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 시 -0.01~ -0.03% 정도의 국가 총생산증가율이 감소함

<표> 투자비 증가에 따른 국내 총생산 증가율 변화

구분	투자지역	국내 총생산 증가율(%)			
		단기(1-3년)	중기(4-6)	중장기(7-10)	장기(11-15)
투자비 5%	수도권 ¹⁾	0.10	0.14	0.19	0.25
	비수도권 ²⁾	0.10	0.15	0.21	0.28
수도권 규제 완화 시		-	-0.01	-0.02	-0.03

주: 1) 비수도권 투자감소, 수도권 투자집중(수도권 규제완화시)

2) 비수도권 투자증가, 수도권 투자감소(지역균형발전시)

자료: 박양호, 200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 지역 경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충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1) 지역총생산(GRDP)

- 2013년 충남의 지역총생산(GRDP)은 980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성장하였으며, 동 기간의 전국 성장률은 2.8%로 나타남
 - 충남의 2006년~2013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전국의 2.9%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지역총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8.5%로 2006년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대비 지역총생산 비율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킴

<표> 지역총생산

(단위: 천억원,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3			연 평균 증가율 (‘06~13)
		구 성 비				전년대비 증가율	구 성 비		
서울	2,615	24.0	2,790	2,897	3,044	3,073	0.9	22.3	2.0
부산	590	5.4	633	637	669	682	1.8	5.0	1.8
대구	354	3.2	371	386	410	428	4.6	3.1	2.4

인천	515	4.7	559	607	621	636	2.3	4.6	2.7
광주	230	2.1	244	264	276	287	3.7	2.1	2.8
대전	244	2.2	254	276	291	294	1.3	2.1	2.3
울산	590	5.4	607	629	683	691	1.1	5.0	2.0
경기	2,176	19.9	2,402	2,666	2,841	2,972	4.6	21.6	4.0
강원	275	2.5	293	306	322	333	3.6	2.4	2.4
충북	330	3.0	347	395	428	459	7.4	3.3	4.2
충남	655	6.0	728	832	920	980	6.5	7.1	5.2
전북	321	2.9	347	366	378	390	3.1	2.8	2.5
전남	523	4.8	556	599	631	626	-0.8	4.6	2.3
경북	695	6.4	761	808	849	860	1.3	6.3	2.7
경남	716	6.6	803	874	906	924	2.0	6.7	3.2
제주	95	0.9	100	109	120	127	5.1	0.9	3.7
전국	10,919	100	11,794	12,651	13,390	13,761	2.8	100	2.9
수도권	5,306	48.6	5,751	6,170	6,506	6,681	2.9	48.5	2.9
비수도권	5,613	51.4	6,043	6,482	6,884	7,081	2.9	51.5	2.9

주: 2010년 기준년 연쇄가격(실질가격)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제조업 부문의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2013년 충남은 485천억원으로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의 제조업 총생산은 연평균 성장률은 8.1%로 전국의 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의 제조업은 4.7%, 인천은 4.1%, 경기도는 8.3%를 차지하고 있음
 -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 5.0%, 인천 4.1%, 경기 8.3%로 나타남
- 제조업 부문 지역총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3년 36%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의 제조업 성장률이 비 수도권보다 더 큰 것을 나타냄

<표> 제조업 부문 지역총생산

(단위: 천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서울	150	5.0	155	152	185	192	4.7	5.0
부산	112	3.7	122	132	128	129	3.2	2.9
대구	70	2.3	81	93	95	96	2.4	6.6
인천	136	4.5	159	169	161	166	4.1	4.1
광주	57	1.9	72	77	78	78	1.9	6.4
대전	38	1.3	41	45	51	53	1.3	7.0
울산	285	9.5	346	402	398	371	9.2	5.4
경기	730	24.4	881	913	941	1,087	26.9	8.3
강원	28	0.9	30	32	33	31	0.8	1.5
충북	123	4.1	154	169	170	195	4.8	9.7
충남	328	11.0	403	478	491	485	12.0	8.1
전북	86	2.9	93	110	107	113	2.8	5.6
전남	149	5.0	213	238	230	203	5.0	6.4
경북	342	11.4	393	387	399	419	10.3	4.1
경남	357	11.9	378	387	413	427	10.5	3.6
제주	3	0.1	3	4	4	3	0.1	-1.3
전국	2,994	100	3,523	3,788	3,884	4,046	100	6.2
수도권	1,016	34	1,194	1,233	1,287	1,445	36	6.2
비수도권	1,979	66	2,329	2,555	2,597	2,601	64	6.2

주: 2010년 당해년 가격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 설비투자

- 매년 시설에 투자되는 설비투자액은 경기도가 319천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충남의 순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충남이 10.6%로 가장 높으며, 경기 8.0%, 대구

5.5%, 인천 4.3%로 분석되었음

- 충남의 설비투자액은 2013년 기준으로 137천억원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로 2009년에 비하여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3.6%에서 2013년 43.9%로 약간 증가하였음
-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투자되는 설비투자액인 1,267천억원 중 수도권에 556천억원인 43.9%가 투자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711천억원 56.1%가 투자되고 있음
 - 비 수도권의 설비투자액은 2009년 보다 조금 낮아져 수도권의 설비투자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리킴

<표> 지역별 설비투자

(단위: 천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서울	166	16.5	171	150	156	168	13.3	0.3
부산	60	6.0	66	59	62	69	5.5	2.8
대구	25	2.5	31	29	30	33	2.6	5.5
인천	56	5.5	66	63	65	69	5.5	4.3
광주	18	1.7	18	20	20	19	1.5	1.7
대전	19	1.9	21	18	19	20	1.6	1.1
울산	45	4.5	47	54	46	46	3.6	0.5
경기	217	21.5	319	331	379	319	25.1	8.0
강원	28	2.7	33	29	29	36	2.9	5.6
충북	48	4.8	51	61	70	64	5.1	5.9
충남	83	8.2	120	189	109	137	10.8	10.6
전북	27	2.6	32	33	34	34	2.7	4.9
전남	55	5.5	71	54	67	73	5.7	5.6
경북	92	9.1	98	93	95	89	7.0	-0.6
경남	63	6.2	72	77	86	82	6.5	5.6
제주	8	0.8	10	8	8	10	0.8	3.7
전국계	1,008	100	1,227	1,267	1,277	1,267	100	4.7
수도권	439	43.6	557	544	601	556	43.9	4.8
비수도권	569	56.4	670	723	676	711	56.1	4.6

주: 2010년 기준년 연쇄가격(실질가격)

자료: 통계청(<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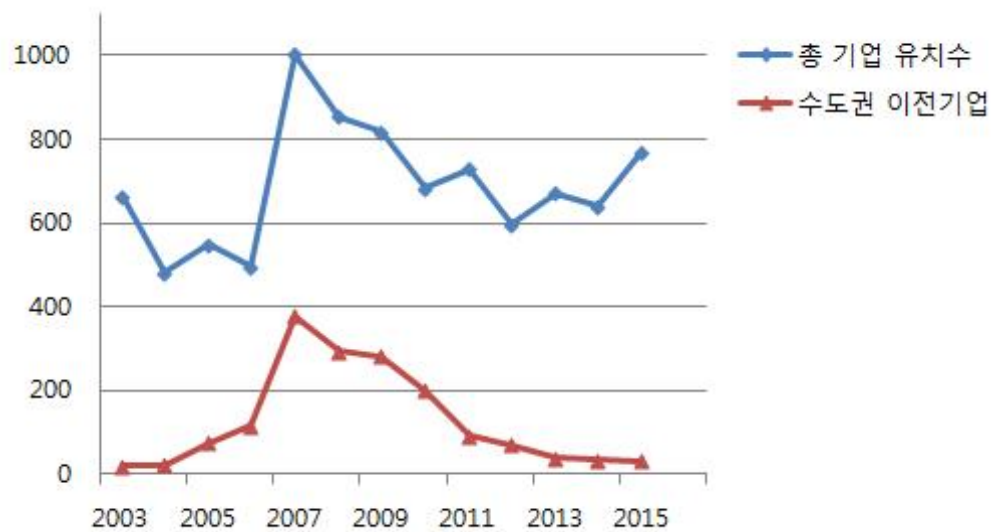
3) 충남도 유치 기업

- 충남에서 유치한 기업체는 2015년 770개로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726개소가 이전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후 평균 이전 기업 수와 증가율은 682개(2.0%)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유치 기업의 투자금액과 부지면적은 2015년 211백억원, 4,882천㎡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6년 이후 1개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은 80억원에서 2010년 이후 45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1개 업체당 고용자 수도 2008년 54명에서 2015년 15명으로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기준의 연평균 증가율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12.5%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기준인 2015이후에는 27%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년 수도권 기업 유치 개소는 평균 161개에서 최근 5년 동안은 77개로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남
 - 투자금액의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은 2008년 358억원으로 타지역 이전기업의 172억보다 투자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남의 기업유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전보다 투자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기업유치의 연평균 증가율의 감소는 세계경제, 국내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산업형태 변화와 관련이 있음
 - 투자되는 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자수, 부지면적의 소규모 화는 기업형태와 패러다임의 변화로도 볼 수 있음. 이는 기존의 제조업 형태의 기업에서 ICT 등 첨단기술로 산업형태의 변화 추세로 볼 수 있음

<표> 기업유치 현황

구분	업체 수 (개)	수도권이 전 기업(개)	투자 금액 (백만원)	고용 인원 (백명)	부지 면적 (천㎡)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액 (백만원)	업체당 투자액 (억원)		업체당 고용자(명)	업체당 부지면 적(㎡)
							전체 업체수	수도 권이 전		
2015	770	30	211	118	4,882	-	27	-	15	6,340
2014	640	32	286	144	4,913	-	45	-	23	7,677
2013	671	38	213	124	4,197	-	32	-	18	6,255
2012	596	69	284	122	4,447	-	48	-	20	7,461
2011	729	92	527	234	7,378	-	72	-	32	10,120
2010	683	200	296	189	5,198	-	43	-	28	7,611
2009	817	282	216	203	6,236	-	26	-	25	7,633
2008	855	368	1,471	463	-	1,316	172	358	54	-
2007	1,004	382	1,725	559	-	1,586	172	415	56	-
2006	495	114	811	213	-	76	164	67	43	-
연평균증 가율	4.5	-12.5	-12.6	-5.8	-3.4	-61.3	-16.4	74.9	-9.8	-2.6
2010년 이후 증가율	2.0	-27.1	-5.5	-7.6	-1.0	-	-7.4	-	-4	-3.0
평균	726	161	604	237	5,322	-	80	-	31	7,585
2010년 이후 평균	682	77	303	155	5,169	-	45	-	23	7,578

주: 충청남도 내부자료, 각년도(빈란은 데이터 부족)



- 수도권 규제에 따라 지역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도록 함
- 분석을 위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를 사용하도록 함
- 시나리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 투자와 설비투자가 수도권에 투자되는 경우와 비수도권에 투자되는 경우의 효과를 비교하며, 이때 비수도권의 투자는 충남에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함
 - 시나리오 # 1: 기업 유치의 20%인 11,632억원의 투자효과
 - 시나리오 # 2: 설비투자의 10%인 13,700억원 투자효과
- 시나리오 # 1의 분석결과 전국적인 효과는 비수도권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 132억원, 고용효과 5,218명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투자시 생산효과만이 440억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에 투자시 생산효과는 26,170억원, 부가가치효과 8,465억원, 고용효과 20,924명의 투자 효과가 있음
 - 수도권 투자시 26,610억원, 부가가치효과 8,332억원, 고용효과 15,705명으로 분석됨
 - 비수도권의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투자의 효과는 비수도권의 투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시나리오# 1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단위: 억 원)

구 분			시나리오 # 1		
			비수도권 투자시(A)	수도권 투자시(B)	차이(C=A-B)
투자 금액			11,632		
파급 효과	생산효과	비수도권	21,297	7,492	13,805
		수도권	4,873	19,118	-14,245
		전국	26,170	26,610	-440
	부가가치 효과	비수도권	6,649	1,855	4,794
		수도권	1,816	6,477	-4,661
		전국	8,465	8,332	133
	고용효과	비수도권	17,288	2,510	14,778
		수도권	3,636	13,195	-9,559
		전국	20,924	15,705	5,219

● 시나리오 # 2는 설비투자액 13,700억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효과 비교로서 전국적인 효과는 비수도권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는 161억원, 고용효과는 6,187명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투자시 생산효과만이 515억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수도권에 투자시 생산효과는 30,823억원, 부가가치효과 9,970억원, 고용효과 24,644명의 투자 효과가 있음
- 수도권 투자시 31,341억원, 부가가치효과 9,814억원, 고용효과 18,498명으로 분석됨
-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비수도권의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설비투자의 효과 역시 비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시나리오# 2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단위: 억 원)

구 분			시나리오 # 2		
			비수도권 투자시(A)	수도권 투자시(B)	차이(C=A-B)
투자 금액			13,700		
파급 효과	생산효과	충남지역	25,084	8,825	16,259
		기타지역	5,740	22,517	-16,777
		전국	30,823	31,341	-518
	부가가치 효과	충남지역	7,831	2,185	5,646
		기타지역	2,139	7,629	-5,490
		전국	9,970	9,814	156
	고용효과	충남지역	20,361	2,956	17,405
		기타지역	4,283	15,542	-11,259
		전국	24,644	18,498	6,146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기존 연구 결과 비 수도권의 투자가 수도권 투자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어 왔으나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투자와 생산과 관련한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추세는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증거로서 지역총생산(GRDP)과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 충남의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의 기업유치 증가율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수도권 유치 기업 실적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충남의 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별 투자규모와 고용인원도 감소 추세임
 - 2006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4.5%에서 2010년 이후에는 2.0%로 감소함
 - 1개 업체당 투자규모는 평균 80억원에서 2010년 이후 45억원, 업체당 고용자 수는 평균 31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함

- 또한, 충남내 수도권 이전 기업의 수는 2011년 이후 대폭 감소하여 최근에는 30개 정도의 기업이 이전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평균 161개에서 2010년 이후에는 평균 77개 기업이 이전하고 있음
- 기업유치의 투자와 설비투자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효과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투자효과가 국민 경제 차원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국적인 효과로 기업 투자의 효과는 비수도권의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 132억원, 고용효과 5,219명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설비투자 효과의 경우에도 비수도권의 투자가 부가가치 효과 161억원, 고용효과 6,187명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충남의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비 수도권의 투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와 생산의 변화는 통계수치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 효과가 높은 비 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기업 투자환경 강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

- 김문연 외, 2007.12, “수도권 규제의 효과,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김홍배, 2001,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김의준 · 임형빈, 2009, 충청권 투자의 지역 및 국가경제 효과 분석, 충남연구원.
- 박상우 · 김동주, 2001, 수도권 집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 박양호, 200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2008.9, 「수도권 정책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 지해명, 2002, 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 허재완, 2003, 수도권 산업입지 총량규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 허재완, 2002, 권역별 전략산업의 배분,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은행, 2015,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